

# 레트로 이미지를 이용한 패션 상품개발

-베스트(Vest)를 중심으로-

김 지 은\* · 박 혜 원<sup>+</sup>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sup>+</sup>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est Design Using Retro Image

Ji-Eun Kim\* · Hye-Won Park<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sup>+</sup>  
(2003. 2. 19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confirming that fashion study has to do with industry through the developing of fashion goods which is related to a trend as a cultural code. Recently fashion design trend is focused on 'retro'. 'Retro' is the one of the important trends in this century not only fashion but also cultural industry.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processing about development of decorative vest design as fashion goods was showed by using retro image.

For this process, research steps were as follows :

1. Confirming the meaning of 'retro fashion'.
2. Studying about the flow of retro fashion from 1960s to 1990s.
3.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retro fashion design and the image through abroad and domestic collections from 2000 to 2003.
4. Designing and making vest using new concept from the leading images.

Through this processed, it was find that retro fashion design had three images : vintage image, ethnic image and romantic image. Then three vests were made by a concept 'a piece of handicraft' using handicraft technique such as beading, patch-work, fringing, scratching, stitching, mixing which were used in retro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Key words: retro fashion(레트로 패션), fashion image(패션 이미지), vintage(빈티지), ethnic(민속적), romantic(로맨틱), vest design(조끼 디자인), design development(디자인 상품 개발)

## I. 서론

Vreeland는 “패션은 인간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되며 특히 살아있는 신체 위에 입혀짐으로써 예술의 영역보다는 산업의 영역에서 그 가치가 있다”<sup>1)</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과 생활문화산업과 패션간의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이란 한 명의 예술가에 의해 탄생되는 작품의 의미보다는 한 시대의 문화와 이를 상품으로 제조하는 산업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패션 디자인 연구가 한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코드(Code)로서의 트렌드와 상품 개발이 관련되어 진행된다면 실용학문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패션의 트렌드는 레트로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레트로 패션의 유행에 대해서는 보그(Vogue)지에서 21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지적하였고<sup>2)</sup> 또한 2002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위한 유행 트렌드로 70년대의 보헤미안이즘, 뉴 히피 현상 그리고 과거의 회귀현상 등을 심도 있게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루이 비통과 세린느 등도 과거의 모델들을 상품화 시켜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지난날의 향수를 컨셉으로 하는 패션 디자인 산업은 선행 연구<sup>3)</sup>들에서 이미 과학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인간적, 비자연적 사건들에 대한 반성에 기인하며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과거와 자연에 대한 재인식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가 옛것을 그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향은 20세기의 물질 만능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모더니즘(Modernism)의 반향이라기보다 고도의 혼란과 방황, 인위적이고 반항적인 시대 사조에 대하여 안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가장 인간적이고 순수한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문명 속에 살아온 인간들은 지금 과거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패션은 물론, 문학과 영화, 건축,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추구하게 되어 결국 ‘레트로’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레트로 패션이란 정해진 형태나 스타일이 아니며 문화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시대의 두드러진 유행문화인 레트로 문화현상 아래서 진행되는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확인해보고 그 이미지를 응용하여 상품화 될 수 있는 패션 베스트(Vest)<sup>4)</sup>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베스트는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 최근에는 장식성이 강한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어 장식적 측면에서 트렌드를 접목시킨 패션 상품 개발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패션 트렌드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해외 컬렉션 중심의 작품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고적 경향의 레트로 패션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선행연구와 이론서적의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레트로 패션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본 후 최근 국내외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봄에 착각 상품 개발을 위해 그 중 세 개의 이미지를 도출시켜 각 이미지에 맞는 베스트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20세기 패션에 있어 스트리트 패션과 함께 대중패션, 젊은 세대들이 패션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대중 문화와 패션과의 교류 속에서 다양성의 하나로 레트로 패션이 제시되었던 196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나타나는 레트로 풍의 패션 트렌드를 10년대별로 고찰하였으며 디자인의 특성과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된 국내외 컬렉션 정보지의 내용과 사진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패션 관련 문헌과 논문 및 정기간행물 기사 등을 통한 문헌 연구와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 특성과 이미지 도출을 위해 국내외 패션 정보지 및 사진 자료와 컬렉션 비디오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한 시각자료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한 상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해 02/03 F/W 트렌드를 중심으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Photoshop 0.7을 이용하여 이미지 맵을 제작하고 세 가지 이미지에 따른 스타일, 색채, 소재를 선정하여 베스트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 II. 레트로의 의미와 그 흐름

### 1. 레트로의 의미

‘레트로(Retro)’ 일반적으로 복고적 패션의 풍조를 말하는 ‘Retrospective’의 단축형을 말한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과거를 향한’, ‘기억에 잠기는’, ‘회고적인’, ‘올라간다’<sup>5)</sup>는 뜻으로 리바이벌(Revival)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좁게는 ‘과거의 스타일이나 패션을 이용하는 것’<sup>6)</sup>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레트로의 의미를 ‘과거의 양식을 포함하되 시대정신과 디자이너 개인의 사상이라는 2차적 의미를 지니는 일종의 창조 활동’이며, 이에 ‘대중에게 익숙하기 위한 유행 개념을 동반함으로써 효과적인 레트로 작품으로 창조되는 것’<sup>7)</sup>이라 하였다. 그리고 패션에서의 레트로란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1971년 S/S 컬렉션에서 1940년대 풍의 패션을 재현시킴으로써 레트로가 완전하게 패션의 한 장르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지적<sup>8)</sup>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날의 사회가 다양화 진분화, 산업화되는 시대의 추세에 따라 첫째, 가장 첨단 의 모험성이 강조되는 경향과 둘째, 도시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향수를 느껴 복고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문화예술 분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패션에서는 후자와 같은 회귀적 경향을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이라 칭하며, 복고풍, 노스텔직 패션(Nostalgic Fashion), 패션 리바이벌(Fashion Revival)등으로 그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sup>9)</sup>도 있다. 이러한 경향의 등장은 인간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중시하게 되었고 정신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하여 과거와 자연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패션에 나타나게 되었다<sup>10)</sup>고 보았다.

한편 패션디자이너들의 오트 쿠튀르의 작품성이 강한 것이든 프레타 포르테의 대중적인 작품이든 과거의 것을 차용함으로써 변화된 미의 가치기준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여 ‘레트로’를 차용의 문제로 보고 이를 개인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시대상황이 반영되는 매체<sup>11)</sup>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레트로에 대해 ‘창조성과 소비자의 정서적 공감대를 연출’하는 ‘감성적 문화·매개물의 의미’<sup>12)</sup>로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의미의 부여는 디자인 상품개발에 있어 소비자의 정서적 취향을 의식하고 이에 적합한 디자인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유행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일일 것이다.

결국 패션에 있어 레트로의 의미는 ‘지나간 시대의 패션에서 디자인의 특성이나 이미지를 찾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 수정하는 것’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공통으로 하여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기술력과 유통관련자들의 마케팅력 및 대중 매체의 힘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 2. 레트로 패션의 흐름

20세기 패션사를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복고풍의 패션이 부활되곤 했었다<sup>13)</sup>. 레트로 패션이 현대 패션 속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는 시기에 대하여 1970년대 Yves Saint Laurent에서부터 보는 견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패션의 대변혁이 이루어져 일부 엘리트계층의 점유물이 아닌 대중들의 삶에 패션이 깊숙이 관련되었다고 보여지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패션 흐름 속에서 레트로 현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1960년대 패션에 나타난 20년대 풍의 부활이나 히피 스타일을 통한 자연주의 회귀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동시에 본 연구가 문화 현상의 코드로 패션의 트렌드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하였기에 유명 디자이너 한 명의 컬렉션보다는 대중과 문화의 문제가 결부된 트렌드 발생의 시기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는 ‘Swing London’이라고 불려질 만큼<sup>14)</sup> 영국이 패션의 중심지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의 타임지가 표현한 대로 활기찬 젊은 세대를 위한 국제적인 명성의 근원이 되었다<sup>15)</sup>(그림 1). 젊은 세대들 중심의 패션이 등장하였고 패션의 혁명이라 불리는 미니스커트가 출현하였다. 이 시대에는 외형적으로 더 이상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급진적 패션의 개혁시대로 볼 수 있는데<sup>16)</sup> 미니 스커트, 우주



<그림 1> 스윙런던의 거리문화, Gerda Buxbaum, 20C Fashion, p.80.



<그림 2> 기능주의적 패션 20000 Years of Fashion, 1987, p.426



<그림 3> 히피의 상징 꽃장식, GeorGina Howell, In Vogue-75 Years of Style, p.176.

룩 등 기능적 조형미의 극치(그림 2)와 함께 기능주의의 모더니즘 사상에 상반되는 복고주의, 절충주의적 디자인이 또한 새로운 패션의 모드로 등장하였다<sup>17)</sup>. 부유한 중산층이외의 노동자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패션은 과거의 수직적 사회구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수평적 문화 구조에 의하여 형성<sup>18)</sup>되면서 인간의 내면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고주의, 절충주의적 디자인은 히피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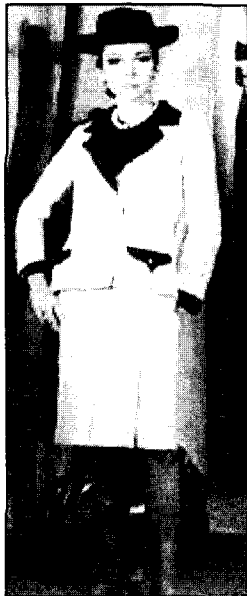
일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하였다.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시대의 정신과 사상이나 문화, 예술을 반영<sup>19)</sup>하기 때문에 60년대의 기능주의 조형미와 이와 반대되는 과거로의 회귀 현상의 공존은 패션이 사회의 이상미 뿐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의 표현이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었다.

히피는 사회의 도덕적 물질적 가치와 미에 대한 전통적 개념 및 기존 체제에 대해 저항하였고 거리 패션으로 등장했던 히피스타일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집시 룩, 로맨틱 룩으로 발전되어 1970년대의 유행을 리드하기도 하였다<sup>20)</sup>. 히피의 옷 스타일은 곧 디자이너들에 의해 상품으로 개발되었다. 영국 카나비 스트리트 중심으로 부티크에서는 히피처럼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히피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꽃이 청바지나 티셔츠, 부츠, 핸드백이나 선글라스를 장식했다(그림 3). 팝아트와 히피 패션의 요란한 장식을 틴에이저들이 청바지에 꽃과 별을 그려 넣거나 수를 놓기도 하고, 화려한 반점을 붙이거나 단 둘레에 다른 색의 천을 대기도 했다. 가공 전에 빨아서 색을 빼고 부드럽게 만든 밝은 진은 60년대 말에 나타났다<sup>21)</sup>.

1960년대의 레트로 패션은 이러한 히피 스타일을 통해 나타난 민속적 동양풍의 모티브와 함께 기능주의 패션의 출발인 1920년대의 스타일의 부활로 표현되었다. 특히, 20년대 유행하던 샤넬 슈트가 유행하였는데(그림 4) 심플한 디자인에 부드럽고 손질하기 쉬운 모직물을 사용했다<sup>22)</sup>. 1920년대 샤넬풍의 짧은 스커트나 쇼트 헤어스타일의 등장처럼 모더니즘을 표현한 방법들이 1960년대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는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적 물질주의의 순수성과 비인간성을 다시 회복하여 자연에의 복귀, 자기 이미지 강조 등으로 전환을 맞게 되었다.<sup>23)</sup> 70년대의 문화적 분위기와 디자인 및 예술 스타일에 관하여 베비스 힐리어(Bevis Hillier)는 극도의 기술적 진보 상황과 자연으로의 도피<sup>24)</sup> 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70년대의 레트로 패션이 60년대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건강식품, 에콜로지,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페전트 스타일의 복고풍과 로맨틱 티시즘의 부활이 함께 유행하였다. 특히, 입 생 로랑

이 1977년 컬렉션에서 정식으로 명명한 레트로 패션은 1940년대를 연상시키는 스타일이었다. 넓은 라펠이 달린 코트(그림 5)와 에스닉 분위기의 프린트와 함께 여유 있는 스타일로 나타났다. 오트 쿠튀르의 포클로어 룩(Folklore Look)은 대중적으로 큰 성과는 못 이루었지만 1980년경까지 컬렉션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sup>25)</sup>(그림 6). 결국 70년대 레트로 패션은 60년대의 레트로가 대중중심의 반사회, 문화적 경향에서 등장했던 것과 달리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의 의해 40년대 풍의 밀리터리 룩과 로맨틱 무드가 유행했으며 고도 성장의 후유증과 회의에 의해 등장한 자연주의 열풍에 의해, 과거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열망이 담긴 페전트, 에스닉, 포클로어 풍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4> 샤넬 룩의 재 유행, 20000 Years Of Fashion, 1987, p.431.



<그림 5> 1971-L'officiel, N.1, 2002, p.36.

바뀌었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여피풍은 의복이나 구두, 액세서리까지도 일류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sup>26)</sup>이 높았다. 레트로 패션은 이 시기에 디자인의 효과를 위한 절충적 스타일로 등장하였다. 이는 포스트모던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서양의 절충, 서로 다른 이미지의 절충주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앤드로지너스 룩, 초현실주의 기법을 매개로 하는 은유와 상징 기법, 복고풍 그리고 장식성 등으로 특징<sup>27)</sup>되면서 1980년대의 레트로 경향은 동양적 민속풍과 20~30년대의 아르데코의 부활, 그리고 50년대의 클래식한 모습까지 다양한 복고 패션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포스트모던의 중심 사상인 '다원주의(Pluralism)'는 수직적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문화 영역에서는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고전적인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말부터 90년대 걸쳐 나타나는 '차용미술'은 기존의 형상이나 방법을 차용하거나 전통적인 방법과 주제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간주되는 역설적 현상을 표현한다<sup>28)</sup>. 이것이 바로 1980년대의 레트로 패션과 레트로 문화 경향이 유행하는 사상적 문화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포클로어, Gerda Buxbaum, 20C Fashion, p.103.

1980년대는 패션 트렌드가 다양화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여러 가지 패션 스타일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레트로 룩이 다시 등장하였다. 80년대 초반에는 풍성한 실루엣이 유행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몸에 밀착되고 허리를 강조하는 관능적 형태로

1990년대 초반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그린 산업의 대두로 에콜로지(Ecology)패션이 유행했다. 천연소재의 사용과 베이지 그린 등 자연색의 사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기말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인간의 심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그리워하게



<그림 7> 50년대  
글래머스타일, Vogue Korea,  
별책부록, 2001. 12, p.45.

<그림 8> 60년대의 스타일의 재유행 기사  
Vogue. Korea, 2001. 7, p.102.

<그림 9> 70년대의 펑크 Elle, Korea, 2002. 7,  
p.132.

되었다. 따라서 레트로 패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현실에의 불만족은 예술에도 반영되어, 세기말 디자인은 절충주의와 함께 해체의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하이테크 디자인에서부터 재활용 이미지, 수공예적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끌어당기는 디자인,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복고풍에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사이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세기말 디자인은 모던디자인이 추구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산 원리보다는 소비와 대중문화, 페미니즘, 컴퓨터화된 정보사회에서 인간적 느낌을 요구하여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한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sup>29)</sup> 1990년대는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기라도 하듯 풍요로웠던 20년대, 30~40년대, 50~60년대 글래머패션, 70년대 펑크, 80년대의 럭셔리 패션등 모든 패션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그림 7~9). 이와 함께 1990년대는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중시하려는 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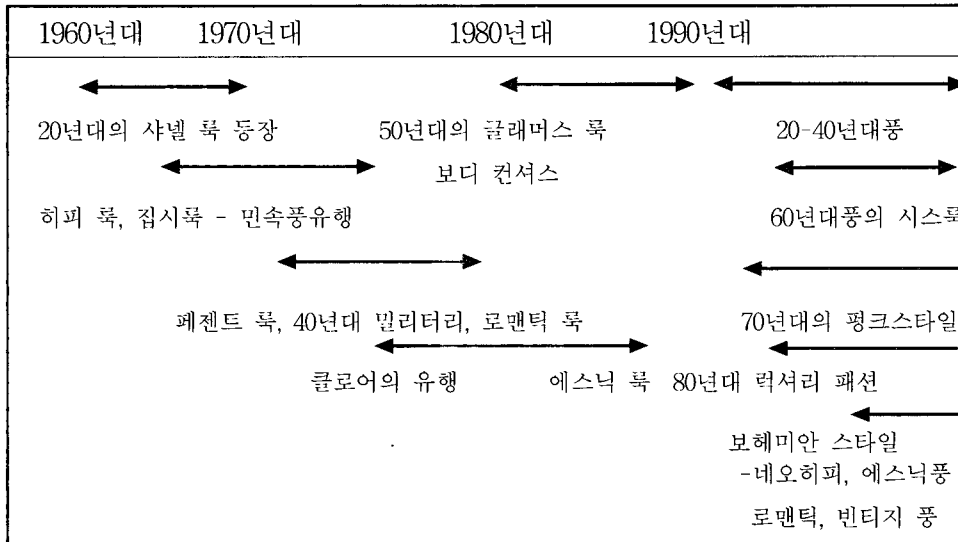
구가 강조되고 패션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한층 고조되는 시대였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거나 생활에 불편 없는 의복 및 풍성하고 착용하기에 편리한 의복 등으로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의복에 의해 충족하려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결국 레트로를 갈망하는 사회 문화적 요구와 개성 창출과 인간적 그리움이라는 개인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패션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상의 레트로 패션의 경향의 흐름을 정리 해 보면 <표 1>과 같다.

### III. 2000년대 이후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 기법과 이미지

#### 1.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 기법

현재 대두되는 패션의 경향은 한 두 가지로 지적

<표 1> 레트로 패션의 흐름 (1960~1990년대)



될 수 없다. 이처럼 패션의 디자인적 특징도 컨셉이나 디자이너의 창작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디자인의 특성을 기존의 연구나 디자인 이론에 근거하여 색채, 소재, 스타일, 형태 등으로 구분 짓기란 사실 어려움이 많다. 특히 최근의 레트로 패션은 한 두 가지의 디자인 경향으로 설명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모든 패션의 스타일들이 다 모여 있는 듯한 착각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나타났었던 수많은 패션사의 경향이나 특징들이 서로 융화되고 복합되며 때론 교차되고 치환되면서 감성은 살리되 스타일은 신선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디자인 장치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기존의 이론서적에 담겨있는 기존의 틀로 디자인의 특성을 구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레트로 패션의 카테고리안에 그에 맞는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선 적절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작품의 사진들을 형태적, 색채적, 소재적 측면이 아닌 보다 통합적인 기준으로 보아 연출적, 표현적인 방법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레트로 패션이란 하나의 주된 경향속에는 이전의 패션 트렌드와는 다른 독특한 연출법

내지는 디자인 기법이 발견되어진다. 이는 그 기법을 통해 과거의 스타일들이 묶여서 통합적인 레트로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의 특성은 바로 그 디자인의 기법에 의해 표현되는 풍부한 감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2000-2003의 파리, 뉴욕, 밀라노 컬렉션 사진 자료와 트렌드 정보를 통해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 기법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기법, 즉 수공예적 기법의 활용과 믹스 앤드 매치를 통한 표현에 의해 레트로 패션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다음단계에서 진행될 이미지 분류와 상품제작에 근거가 된다.

1) 수공예적 기법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주된 트렌드인 레트로 패션은 소재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가 아니며 또한 형태의 특성에 있는 것도 아니다. 02-03 패션 정보지의 제시와 컬렉션 작품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자이너의 수공예적 작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공예적 기법이 주는 통합적 이미지 효과라 하겠다.

Vogue Korea에서 제시된 01-02, S/S 파리 컬렉션의 Chloe의 작품에서는 부드럽고 우아하면서 섹시한 이미지의 컨셉을 보여주며 이를 위해 70년대 풍의 이미지를 도입했는데 레이스가 트리밍 된 캐미솔(그림 10), 엘레강스한 블라우스나 셔츠 등의 아이템이 보인다. 이들의 작품에서 강조된 것은 수공예적 섬세함으로 고급스러우면서 캐주얼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Dries Van Noten은 에스닉 풍을 통해 중남미 아메리카의 과거의 기억을 풍요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금은 장식이 섬세하게 첨가된 폴 스커트와 재킷들, 대담하게 장식되고 두꺼운 프린지가 가장자리에 둘러진 코트는 인디언 추장의 텐트를 연상시키는 의상들이다. 특히 프린지 장식의 두꺼운 가디건과 페루풍의 스웨터 등에는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통한 섬세함과 고급스러움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보인다(그림 11).

02-03 F/W 뉴욕 컬렉션에서의 Balenciaga 작품을 보면 80년대 풍이 감미된 60년대의 레트로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풍의 미니스커트는 바이어스 커팅으로 부드러운 이미지였고, 재킷에는 털로 만든 세밀한 작업의 끈 장식이 디테일로 표현되어 품위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John Galliano도 에스닉풍을 통한 과거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붉은 계열의 의상에 금실의 자수로 놓여진 디테일과 라이크라가 섞인 코튼 원피스로서 티베트 지방의 여행 추억을 나타내고 있다<sup>31)</sup>(그림 12).

국내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역시 수공예적인 기법을 통한 레트로 패션의 표현에 집중되어 고급스러운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02년 S/S SFAA 진태옥 컬렉션에서는 40년대풍의 각진 어깨와 50년대풍의 허리가 강조되고 스커트 길이가 무릎 근처까지 오는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섞여 레트로 페미닌의 이미지를



<그림 10> 수작업을 통한 <그림 11> 자수와 스티치 작업한 디테일, L'officiel, 2002. 4-5, N.24, p.73. <그림 12> 오리엔탈 품의 자수, Basar. 별책부록, 2001. 12, p.10. korea, 2002. 8, p.241.

02-03, F/W 밀라노 컬렉션의 Genny의 작품들은 80년대 풍의 글래머와 섹시 룩을 추구하였고 체인미니, 밍크 베스트와 지퍼가 부착된 고무줄 탑, 인조 악어 가죽, 다이아몬드 장식의 아이템, 저지 미니드레스에 보석으로 장식된 웨이스트 밴드 역시 디자이너의 한땀 한땀 공들인 정성과 수작업적 기법을 통한 것으로 기계나 기술적 발전을 통한 매끈함이 아닌 정성과 고급스러움이 표현되었다.

느끼게 해준다. 또한 면, 시폰, 오간자, 타프타 소재를 워싱하고 스티치 처리하여 셔링을 잡아 한편으로는 여성스럽게, 한편으로는 쉬크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패치워크된 데님 아이템이 가벼운 소재와 매치되고 핸드 스티치로 장식이 부여되어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다<sup>32)</sup>(그림 13).

02-03 F/W SFAA 신장경 컬렉션에서는 레트로 로맨틱 스타일의 빈티지 모드를 테마로 해서 보헤





<그림 13> 수공예적인 디테일들, <http://www.farbezine.com/collection.htm>

미안 히피풍에 에스닉이 가미된 50년대와 70년대의 다양한 스타일을 혼합한 페미닌 란제리 룩 스타일을 나타내었다<sup>33)</sup>. 특히 모든 디테일은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여 다른 옷과 차별화를 부여하였다. 모든 원단과 실을 로맨틱한 빈티지풍의 표현을 위해서 손으로 직접 염색을 하였다. 그리고 루비나 컬렉션도 수공예적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하였다. 인도의 전통적 이미지와 60년대의 보헤미안적인 요소의 의상들을 가위로 찢어서 빈티지 풍을 연출한 것과 핸드 메이드의 의상들이 고급스러움을 나타냈다. 또한 손정완의 테마는 'Individual In You'로서 고딕에서 모던, 히피, 로맨틱시즘 등의 자유로운 영감을 신선하게 표현하였는데 컬러는 블랙을 중심으로 믹싱하였고 소재는 패치워크 가죽, 스트라이프, 오블리크 라인 커팅 테크닉이 가미된 수공예적 느낌의 켈트 작업이 모피로 표현하였다.

결국 최근의 레트로 패션의 경향을 통하여 보면 단순히 과거에 대한 느낌과 아이템을 차용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수공예적 기법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고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레트로 패션이 과거에 민속풍, 히피풍, 빈티지 풍 등의 스타일들을 21세기의 디자인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인간적 감성을 기계화 할 수 없는 따뜻함을 컨셉에 부여하고 이를 표현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수공예를 선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교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수공예적

기법을 통해 보다 고급스럽고 풍요로운 럭셔리를 표현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수공예적 기법을 통한 레트로 패션은 에스닉한 이미지와 로맨틱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수공예적 기법을 통해 50년대의 로맨틱과 엘레강스, 그리고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순수한 자연스러움과 휴머니티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80년대의 볼륨감을 중심으로 비대칭과 셔링, 프릴, 러플 등은 제작하고 기타 장식적 아이템을 통해 과거의 모던한 라인과 함께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로맨틱한 실루엣이 등장해 레트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 2) 믹스 앤드 매치 기법

레트로 패션의 표현적 기법 중 또 다른 하나는 부조화적인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개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다. 형태나 아이템의 코디네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소재간의 그리고 색채와 색채간의, 형태와 형태간의, 장식과 장식간의 구분 없이 모든 가능성들을 서로 섞고 조화시켜보는 자유로움이라 하겠다. 이는 마치 안티 스탠다드(Anti-Standard)<sup>34)</sup>와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패션의 특징이기도 한 안티 스탠다드패션은 '한 시즌에 전개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패션 경향으로 60년대 디테일을 사용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연출하여 새로운 이미지<sup>35)</sup>를 만들었다. 비단 90년대의

유행으로 머물지 않고 2000년대로 들어와서 보다 더 적극적인 디자인 기법으로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지나간 시절의 감성적 풍부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4> Vogue Korea 별책부록, 2002. 5, p.57.

02-03, F/W 밀라노 컬렉션에서 Marc Jacobs의 작품은 70년대의 레트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상과 소재의 믹스 앤드 매치, 다양한 방식의 레이어링, 낡고 오래된 빈티지 풍의 프린트와 색상의 조화 등이 코듀로이, 벨벳 그리고 데님 등의 소재로 표현하였다. 니렁스 스커트, 몸에 타이트한 블레이저, 무지개빛 줄무늬 스웨터 등에서 항상 긴 니트 머플러가 코디 되었다. 따라서, 믹스 매치의 70년대 풍의 스타일이 세련되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었다(그림 14). 02-03, F/W Miu Miu의 작품을 보면 컬러의 배합이 어느 시즌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핫팬츠가 재킷과 만나 마치 50년대의 수영복을 연상하도록 이끄는가하면 70년대 풍의 선글라스의 코디를 통해 지나간 시절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그림 15).

파리 컬렉션에서 Chanel은 불량한 여학생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아이템과 소재 및 장식의 믹스를 통

해 부조화스런 슈트를 선보였다. 스커트나 드레스에 작은 가죽 재킷을 매치 시키고 하늘거리는 부드러운 의상에 피트한 가죽을 착용하고 70년대풍의 선글라스를 코디시켰다. Prada의 컬렉션은 50, 60년대의 요소가 믹스 앤드 매치로 잘 나타났는데 가디건, 파자마 탑, 모로코와 인도 풍이 감미된 브로케이드를 이용하여 50년대의 엘레강스와 60년대의 미니멀 스타일을 다시 표현하였다. 뒤쪽에서 리본을 묶고 반짝이는 베스트에 투명한



<그림 15> L'official HIVEER 2002-2003, p.38.

한 실크팬츠와 스커트를 매치시키거나 스커트와 팬츠안에 가디건과 셔츠를 넣어 입는 방식의 독특한 믹스 앤드 매치를 보여주어 복고적인 이미지에 로맨틱하면서 고급스런 소재 표현이 잘 나타났다<sup>36)</sup>. Ralph Lauren도 02-03, S/S 뉴욕 컬렉션에서 도회적인고 세련미를 선보였는데 부드러운 컬러와 함께 구슬장식의 실크 시폰 스커트, 수놓인 튜, 여러 겹의 레이어드 된 스커트에 섬세한 블라우스, 스웨터, 재킷을 매치 시켰다. 사슴가죽의 재킷에 캐미솔 탑과 자수 장식의 스커트를 매치 시킨 의상 역시 자연스러운 퓨전적인 느낌을 준다. Jacobs의 컬렉션도 실용적이며 재미있는 믹스 앤드 매치 룩을 제시하였다. 로맨틱 분위기의 프릴 달린 스커트와 상반되어 약간 투박해 보이는 스웨이드 베스트의 매치도 조화를 이루었다.

02-03 S/S 파리 컬렉션에서 Junya Watanabe는 믹스 앤드 매치의 기법을 통해 분해, 해체, 손상의 이미지를 회색 실크나 검정 브로케이드 드레스, 낡고 바랜 느낌의 벨벳드레스 등으로 표현하였다. 80년대의 스타일을 매우 무미 건조한 느낌의 큰 모자와 등이 깊게 파인 패치워크 드레스가 표현되었다(그림



<그림 16> Vogue Korea, 2002. 5, p.15.



<그림 17> Vogue Korea-별책부록, 2000. 3, p.2

16). 샤넬은 80년대 풍의 메이컵과 함께 빈티지 스타일을 매치 하였다. 짧은 털실로 만든 톤 다운된 니트 스웨터에 물이 빠진 듯한 더티 진(Dirty Jeans) 스커트, 그리고 같은 소재의 더티진 솔을 믹스 앤드 매치 시킴으로 하여 빈티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17). Jean Colonna의 컬렉션에서도 끝처리를 하지 않고 패치워크 시킨 데님 소재의 의상들이 낡은 느낌을 나타냈다.

02-03 파리 F/W 컬렉션에서 Emanuel Ungaro 역시 80년대의 보헤미안 분위기를 80년대의 쉬크하고 다양한 프린트의 스커트와 함께 에스닉 분위기를 연출했다. Kenzo의 컬렉션에서도 중국 남성복의 이미지와 스코트랜드의 군인들이 입던 체크 스커트를 외형적으로 믹스해서 나타내었다. 꽃무늬 자수와 프린트, 네크라인의 디테일 등이 민속적인 스타일을 연출했다(그림 18).

국내에서는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해외와 비슷하게 빈티지풍의 레트로 패션을 선보였다. 02-03 F/W SFAA 설윤형 컬렉션에서는 빈티지 이미지를 통한 레트로 패션을 잘 표현 하였다. 여러 가지 기법과 소

재를 이용해서 'Stranger In Paradise'라는 테마로 낡은 빈티지 룩이지만 고급스러운 페미닌한 밀리터리 룩으로 디자인했다. 서로 상반되는 것과 모순된 것들을 믹스 앤드 매치 시켜서 새로운 오리엔탈 룩으로 재창조(37)해서 레트로적 이미지를 안겨준다. 또는 네추럴하고 언발란스한 컷팅으로 시폰 소재의 울 풀림이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기도 했다.

박동준의 02-03 F/W SFAA Collection에서 'Will We Ever Be Fresh Again?'

이란 테마로 자연을 닮으려는 에스닉 느낌으로 컬러는 블랙, 카키, 브라운, 베이지 등을 사용하였고 소재는 울, 실크 쉬폰, 타프타, 레더, 캐시미어, 벨벳, 저지, 타탄 울체크, 니트로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 였다.



<그림 18> L'official, 2002. 4-5, p.71.



<그림 19> <http://www.sfaa.co.kr/>

아프리카 에스닉 이미지가 디자인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과 자연이 갖고 있는 색상들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스타일은 로맨틱하면서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표현했다. 쇼의 특징을 자연을 닮으려는 도심 속에 존재하는 에스닉 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신선함으로 표현했다<sup>38)</sup>(그림 19).

이와 같이 민속적인 이미지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서로 믹스되어지면서 시간 여행을 하고자 하는 과거에 대한 열망은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되어 나타나고 있다. 패치워크나 커팅된 가죽의 배열, 다양한 색깔의 배합, 여러 문양의 자수 등 에스닉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01-02 S/S 서울 컬렉션과 SFAA 컬렉션 등에서 더욱 다양한 믹스 앤드 매치를 볼 수 있다. 이는 아이템이나 소재의 믹스 앤드 매치나 역사적, 시대간의 절충이 아닌 이미지 간의 조화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내추럴과 럭셔리, 에스닉과 오리엔탈, 섹시와 핑크, 레트로와 로맨틱, 소녀 풍과 스포티즘이 믹스 매치되어 함께 나타났다<sup>39)</sup>.

02-03 F/W 서울 컬렉션에서 Ecole De Paris는 로맨틱 페전트 룩과 데님의 조화를 통해 '레트로 로맨틱시즘'이라는 테마를 표현하였다. 거친 니트 소재와 코듀로이 팬츠, 레이스 스커트 등이 매치도 있었고 데님과 평범한 셔츠에 데님 소재를 잘게 찢어 사선으로 붙이는 작업이나 레이스와 스웨이드를 잘라서 교차시킨 부츠, 데님 소재에 징이 박힌 부츠, 발목 아래는 가죽이고 발목 윗 부분부터 니트 소재로 된 롱 부츠, 엄지발가락 부분에만 꽃이 달린 샌들, 데님 부츠 앞 코에만 금박이 장식된 부츠, 발가락부분과 발 뒤꿈치가 드러나는 독특한 커팅의 신발 등 로맨틱하면서도 거친 느낌을 나타내어 개성미를 표현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sup>40)</sup>(그림 20).

02-03 F/W 서울 컬렉션에서 박항치는 'Free Spirit'(자유정신)를 테마로 사회의 틀속에 억압받지 않는 80년대의 보헤미안, 집시의 정서를 재해석했다. 고상한 실크의 광택과 거친 가죽의 세련된 개성미를 창출 하고자 했으며 광택이 나는 재킷과 코발트 블루 가죽 스커트 의상이 주는 대조적인 패브릭의 이미지를 이용한 아름다움을 만들었다. 60년대의 히피, 90년대의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그린이 패션을

“풍요로움으로부터의 도피”라는 테마로 해석하여 네오히피 패션을 새롭게 변형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디자인했다<sup>41)</sup>고 지적한 것처럼 레트로 패션은 이미지들의 조각 맞추음으로 또한 이질적 색채와 소재 그리고 형태나 기법에서도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은 노력으로 자유롭게 조화시켜 개성을 표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의 진의 대중화 이후로 지금까지 데님의 패션은 복고적 빈티지 이미지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빈티지 이미지는 여러 스타일들이 함께 매치되어 복고적 열풍과 함께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60~80년대의 이미지가 모던 레트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레트로 패션은 에스닉적 요소와 시대적 요소를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모조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요소를 장식적으로 패션에 도입하였다. 최근의 패션이 여러 민족, 지역의 고유 민속법을 현대 복식에 절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국적인 문양이나 부분장식, 표면장식, 색채 등이 새로운 장식성으로 등장하고 있음과 같다. 특히 존 갈리아노 작품을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전 세계의 민속 이미지를 미래지향



<그림 20> 'ecole de paris' 카탈로그, 2002/2003 F/W Seoul collection



<그림 21> 글로벌 에스닉 패션, Vogue. Korea, 2002. 9, p.384.

적으로 조합하는 것처럼 훌륭하게 믹스시켜서 만들어 냈다(그림 21).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에는 서로 다른 이미지의 문화적 요소를 결합시킨 글로벌 에스닉 룩도 다분히 포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세기의 모든 스타일을 재현한 것 같은 최근의 레트로 패션은 형태보다는 양식에 얽매이지 않은 개성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미적 특성 속에는 자연과 인간본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절충주의적인 한 스타일의 절대적인 수용이 아닌 복합적 스타일의 양상이 있음<sup>42)</sup>을 알 수 있으며 표현적으로는 빈티지 레트로 풍이나 에스닉 풍을 통해 세련되지 않은 소박한 시도를 통해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 2. 레트로 패션의 이미지

앞서 지적한 레트로 패션의 의미와 흐름,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 표현된 디자인 기법의 특성을 통해 레트로 패션의 이미지에 빈티지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 그리고 로맨틱 이미지의 유형이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상품개발을 위해 각 이미지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빈티지 이미지

빈티지(Vintage)란 원래의 어원은 최고급 포도주인 빈티지 와인을 뜻하는 단어이다. 패션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 어떤 특정의 두드러진 유행이나 유행품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오래되어도 가치가 있는 것' 또는 '오래되어도 새로운 것'이다<sup>43)</sup>. 벵룩시장이나 보세가게에서 고른 오래된 듯한 낡은 옷들을 크로스 코디네이트해서 입는 스타일이라 하겠다.

레트로 패션에 있어 자주 애용되고 있는 오래된 시간의 경과와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빈티지 이미지의 사용은 자주 등장한다. 기법으로는 구슬 백, 꽃무늬 프린트들이 빈티지 룩을 살리는 요소들이다. 낡은 느낌이라고 해서 털실로 짠 모자, 군화 스타일의 부츠 등을 소품으로 겹쳐 입기를 시도하는 그런지 스타일과는 구별된다. 낡은 듯 바랜 레이스와 스코랩으로 장식된 블라우스와 밀리터리풍의 모자가 잘 매치

되어 보이시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그림 22).

빈티지는 평키한 데님이나 지저분한 낡은 옷이 아니라 과거의 빈티지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레이스나 시폰, 고급스러운 소재를 믹스 앤드 매치한 '소프트 빈티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빈티지의 주요 소재인 데님이 워싱과 탈색을

통해 질기다는 고정관념에서 부드러운 소재로 나타났다. 데님뿐 아니라 성글게 짜여진 카디건이나 빛바랜 니트, 코듀로이 등도 빈티지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 2) 에스닉 이미지

'에스닉(Ethnic)'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민족의'란 뜻으로 특정 민족의 특정 양식(스타일)을 의미한다. 60년대 말의 히피풍과 70년대의 자연주의 열풍에 의해 많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작업시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었다.

최근 에스닉의 트렌드는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지칭하지 않는다. 모든 문화권이 믹스되어서 거부감 없이 우리의 생활에 자리잡는다. 또한, 여기에 미니멀, 테크노, 스포츠, 로맨틱 등 여러 미적 요소가 조화되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과거 60년대 히피에서부터 인도풍의 동양의 민속적 요소가 그 후 아프리카, 이슬람과 극동 아시아풍까지 매우 다양하다. 컬렉션마다 에스닉 스타일이 끊임없이 선보이지만 조금씩 그 지역권들이 이동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갈수록 한 지역권이 아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경향이 한 스타일의 옷에 나타나는 다국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현대 복식에서 모자이크풍 패턴의 이국성은 자연적인 경향과 민속



<그림 22> Vogue. Korea, 2002. 8, p.346.

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서 원색적 또는 토속적인 색상대비와 기하학적인 문양이 문화적인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sup>44)</sup>하여 표현되는 에스닉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90년대 말의 미니멀에서 2000년은 오리엔탈과 에스닉이 다시 등장하여 극도로 화려한 디테일과 값비싼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페미닌 앤드 로맨틱 스타일은 리본 장식, 꽃 장식 등의 장식류를 사용하여 더욱 여성스러워졌으며 최근에 두드러지듯이 우아한 라인이 강하게 급부상하고 있다. 00-01, S/S 경향 중의 하나로 웨스턴 스타일의 리바이벌을 들 수 있다. 컬러풀한 소재와의 믹스 사용은 에스닉과 오리엔탈과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프린트와 패턴에서는 이국적인 것에 대한 향수와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패턴물과 프린트의 사용이 증가했고 스트라이프로 모던하고 그래픽적인 느낌부터 에스닉한 느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3) 로맨틱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란 로맨티시즘을 가진 요소를 말하는데, 로맨티시즘(Romanticism)은 18-19세기 유럽의 완고한 고전주의(Classicism)에 대항하여 인간 감정의 자유분방한 표현을 주장한 문예사상을 일컫던 낭만 주의적인 경향을 말하며, 르네상스나 로코코 시대의 영향으로 레이스, 러플, 장식적인 소재 등이 사용되거나 여성적인 곡선을 강조한 디테일이 가미된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스타일을 말한다. 지금의 로맨티시즘은 아방가르드한 전위적인 스타일과 가미되어 새로운 레트로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90년대 들어 선풍적인 유행으로 다가온 복고적인 스타일에 어느 해 보다 다양한 컬러가 사용되었다. 내추럴한 실루엣과 클래머러스의 공존속에 무지개빛 컬러들이 등장하였다. 이런 복고스타일은 70-80년대를 연상케하는 내추럴한 실루엣에 주름과 끈으로 묶기에 어울리는 드레이퍼리가 주류를 이루며 몸을 구속하지 않는 흐르는 실루엣이 대표적이다. 컬러는 화이트와 베이지 등의 기본 컬러들과 라이트블루, 핑크, 바이올렛, 그린 등 무지개 빛 컬러들이 모두 등장하였고 기하학적인 프린트, 꽃무늬, 또는 패치워크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컬러 대비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70년대의 집시 스타일로서 머리 두건에 큰 꽃 장식의 코사지, 스프링 꽃무늬 프린트의 여유 있는 원피스 역시 레트로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3). 또는 여유있어 보이는 사선 스트라프 타입의 블라우스와 같은 원단의 길게 늘어뜨린 스카프, 긴 벨트의 프린지 장식, 80년대 풍의 메이크업과 부풀린 헤어스타일이 로맨틱 이미지로 표현되었다(그림 24). 그리고 Canel은 트렌디한 아이템과 클래식함을 믹스하여 모던한 소재의 샤넬 로고가 프린트된 블라우스와 진 소재의 A라인 롱스커트가 복고적인 로맨틱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25).

로맨틱 이미지 중에서 중요한 디테일의 하나로 레이스, 프릴, 러플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레이스의 오픈 솔더 블라우스와 하이 웨스트라인의 커다란 러플이 레이어드된 팬츠도 선보였는데 작은 도트무늬가 모던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그림 23> Vogue. Korea, 2002. 8, p.247.



<그림 24> Basar. Korea, 2002. 8, Karra광고.



<그림 25> Vogue Korea, 2000. 4, p.288.

## 2. 디자인 기획

### 1) 컨셉

"A Piece Of Handicraft"을 테마로 손끝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해 스티치를 하는 수공예적 기법을 통한 레트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낡은 것을 차용하여 하위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급스럽고 세련된 패션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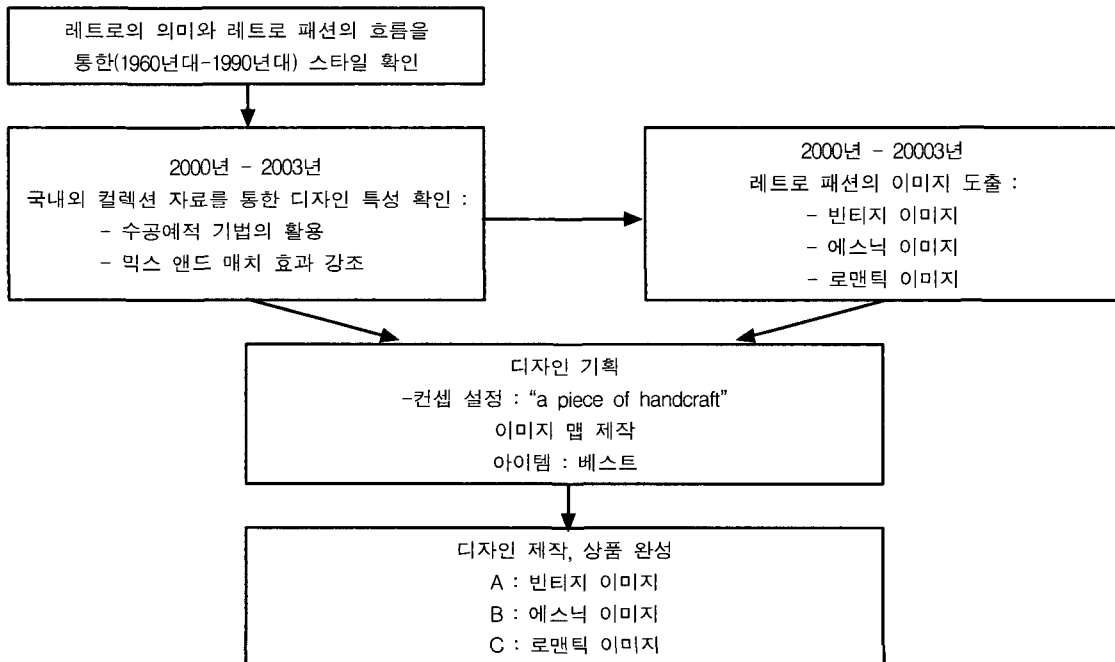
### 2) 타겟

연령적으로는 20대 초·중반으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 개성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 감각에 있어 감성도가 높은 여성으로 유행에 관심이 많으며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자신만의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여성을 소비자 타겟으로 하였다.

## IV.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1. 디자인 개발과정

<표 2> 레트로 이미지를 이용한 패션 상품 개발 과정



3) 이미지 맵



4) 디자인

(1) 디자인 A-빈티지 이미지

70년대에 대중화된 진즈가 현대까지 여러 스타일로 유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낡은 이미지와 색이 바랜 데님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깊은 V네크라인에 징과 가죽끈, 프린징으로 장식, 데님 부분에 칼로 찢고 스크래치하여 빈티지 이미지를 살렸고 악어 가죽 프린트의 웹 라인에는 가위로 컷팅 해서 프린지 장식을 하는 등 손 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장식들

을 이용하였다. 색상은 다크 진의 블루, 브라운 계열의 인조 가죽을 매치 하였다.

(2) 디자인 B-에스닉 이미지

오리엔탈풍 프린트 소재의 차별화와 스웨이드 표면을 이용하여 민속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인조 스웨이드,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직, 울/폴리에스테르, 면의 사용으로 기본 프리센스 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조각으로 패치워크 작업을 하였다. 수공예적으



로 러닝 스티치와 나무 단추의 장식으로 자연적인 느낌을 부여하였다.

### V. 결 론

#### <디자인 C -로맨틱 이미지>

여성스런 색상과 셔링과 주름 장식을 기본 디테일로 우아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로맨틱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수직실크 소재를 사용하여 핑크계열의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색상들을 그레이레이션시켜 프릴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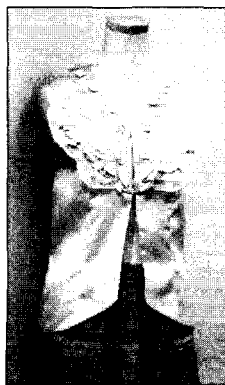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행 트렌드인 레트로 패션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미지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상품으로서의 베스트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패션이란 신체 위에 입혀짐으로써 발생하는 생활 문화 산업이란 명제 하에 진행되어 패션 디자인 연구가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실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표 3> 디자인 기획

	디자인 A	디자인 B	디자인 C
컨 셉	"a piece of handicraft"		
타 겟	20대 초~중반에서 연령으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 개성과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 감각에 있어 감성도가 높고 유행을 따르면서도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자신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여성		
이미지	- 빈티지 70년대풍의 낡은 이미지를 데님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비즈, 징, 가죽 끈, 프린지 등의 수공예적 방법 장식	- 에스닉 오리엔탈풍의 이미지를 소재의 차별화로 프린트 물과 스웨이드 표면감을 이용하여 민속풍으로 표현	- 로맨틱 로맨틱 히피 스타일로서 여성스런 색상과 셔링과 주름의 우아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로맨틱 이미지를 연출
색 상	다크 블루, 브라운 계열	브라운계열, 블루계열의 페이즐리무늬, 카키	라이트 핑크, 핑크, 다크 핑크
소 재	데님, 인조가죽, 가죽끈	인조 스웨이드, 면/폴리에스테르, 울/폴리에스테르, 면	수직 실크
디테일	깊은 V넥라인에 징과 가죽끈 장식, 프린징과 비즈로 장식하고 스크레치 기법을 사용하여 오래된 느낌을 살림	기본 프리센스 라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각을 패치워크 작업을 하고 수작업을 통해 가죽끈으로 장식 스티치를 함	핑크는 세가지 색으로 그레이레이션이 되도록 하고 레이스와 프릴, 비즈로 포인트 장식을 함. 넥라인과 앞 부분을 강조함

### 3. 디자인 제작 결과

이를 위해 최근의 유행 경향인 레트로 패션의 의미와 패션사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2000년부터



<디자인 A>



<디자인 B>



<디자인C>

2003년까지의 국내외 컬렉션에서 제시된 레트로 패션의 디자인 기법과 그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도출된 이미지는 모두 세 개로 요약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컨셉을 정하고 각 이미지에 맞는 베스트 디자인을 하여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 레트로의 의미는 지나간 시대의 패션에서 그 디자인 특성이나 이미지를 찾아내어

현재의 기호에 맞게 재 수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등장한 레트로 패션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한 두 가지 스타일이 재유행되었던 레트로 패션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면서 매우 다양한 스타일이 시작되어 특정한 스타일의 레트로 유행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었다. 특히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내의 컬렉션에서는 레트로의 이미지이지만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간에 혼합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글로벌 에스닉 무드와 어우러졌다. 그러나 디자인 기법적 특성에서는 수공예적 기법을 이용한 과거지향적 분위기와 믹스 앤드 매치 기법을 통한 차별화의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로는 빈티지 이미지와 에스닉 이미지 그리고 로 맨틱 이미지로 나타났다. 도출된 세 가지의 이미지를 근거로 또한 수공예적 기법과 믹스 앤드 매치 기법을 이용하여 각 이미지에 맞는 베스트 디자인을 하여 이를 제작하였다.

패션 트렌드는 하나의 문화 코드이며 이는 당 시대의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 따라서 트렌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패션분야가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산업 생산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란 점에서 트렌드와 상품개발에 관련된 연구 또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장식목적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고 디자인 분야의 특성상 하나의 이미지에도 많은 상품 개발이 가능하기에 객관화 검증은 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1) Sung Bok Kim (1998). Is fashion art?. *Fashion Theory*, 2(1) p. 54.
- 2) Vogue Korea (2001). *Report Fashion 12*, p. 162.
- 3) 백승희 (1991). 신 회귀(neo retro)경향에 의한 식물 이미지 패턴 연구: 발염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양윤정 (1994).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Natural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종희 (1995).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희용 (1996). 현대 Fashion에 나타난 Retro 경향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정원 (1997). Recycling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순경 (1997).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천지영 (200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은경 (2001).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혜원 · 이미숙 (2002). 레트로(Retro) 패션의 특성과 문화산업적 의미 연구. *복식*, 52(3).
- 4) fashion 전문 자료 사전 (1997). 한국 사전 연구사 (KDR), p. 461.  
조기란 소매 없는 상의로 총칭되는 의복으로서 처음에는 남성용 조끼에서 시작하여 19C 여성복으로 전용되어 블라우스 위에 입거나 재킷 밑에 받쳐입기도 하였다.
- 5) 英韓大辭典 (1991). 시사 영어사.
- 6)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0). Sixth ed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1093.
- 7) 장희용 (1996). 앞의 책, p. 84.
- 8) 조규화 (1995). *복식 사전*. 서울: 경춘사, p. 104.
- 9) 백승희 (1991). 앞의 책, p. 250.
- 10) 김순자 · 추미경 (1998). 현대 복식에 표현된 신고전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9), p. 18.
- 11) 이효진 (2001). 현대 복식에 내재된 Appropriation의 의미 연구. *복식*, 51(4), p. 156.
- 12) 위의 책, p. 162.
- 13) 박혜원, 이미숙 (2002), 앞의 책, p. 174.
- 14) 김종복 (1988). *패션 워드 컬렉션*. 서울: 도서출판시대, p. 112.
- 15) Grada Buxbaum (1999). *The 20th Century Fashion*. PRESTEL Munich · London · New York, p. 81.
- 16) David Bond, 정현숙 역 (2000). *20세기 패션*, p. 201.
- 17) 정삼호 (2000).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p. 152.
- 18) 현대패션100년 편집 위원회(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패션1900-2000*, 교문사, pp. 210~211.
- 19) 박종희 (1995). 앞의 책, p. 21.
- 20) 하윤경 · 김혜경 (2001). 사군자의 디자인 모티브를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연구. *복식*, 51(2), p. 164.
- 21) 정은숙 · 김신우 (2002). 히피패션이 보보스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2), p. 48.
- 22) Ingrid Loschk, 이재원(역) (2000). *여성들은 다시 가*

- 습을 높이기 시작했다. 20세기 패션 문화사, 한길아트, p. 384.
- 23) 정삼호 (2000). 앞의 책, p. 163.
  - 24) 유순경 (1997). 앞의 책, p. 6.
  - 25) Bevis Hillier (1983).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NY, E · P · Dutton. Inc. pp. 202~225.
  - 26) 이재원(역) (2000). 앞의 책, p. 429.
  - 27) 정은숙 · 김신우 (1997). 앞의 책, p. 49.
  - 28) 임영자 · 한윤숙 (2001). 뽀퍼스(Memphis)디자인이 현대 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 20세기 말을 중심으로. *복식*, 51(1), p. 10.
  - 29) 유순경 (1997). 앞의 책, p. 13.
  - 30) 김민수 (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도서출판 숲, pp. 119~124.
  - 31) 허갑섭 (1998). *복식문화와 복장사*. 서울: 이룸, p. 266
  - 32) *Basar. Korea*. 2002. 8, p. 241.
  - 33) *Vogue. Korea*. 2002. 8, p. 125.
  - 34) anti-standard fashion :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믹스 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의 아이템을 코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패션의 형태. 단, 안티 스탠다드 패션 속에서도 스탠다드 패션 요소들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
  - 35) 박중희 (1995). 앞의 책, pp. 42~53.
  - 36) *Vogue Korea*. 별책부록, 2001. 12, p. 28.
  - 37) 2002/2003 SFAA clection,  
from <http://www.sfaa.co.kr>
  - 38) 2002/2003 SFAA clection,  
from <http://www.sfaa.co.kr>
  - 39) 패션 비즈, from <http://www.cambridge.co.kr>
  - 40) 2002/2003 컬렉션,  
from <http://www.seoulcollection.co.kr>
  - 41) 권정원 (1997). 앞의 책, pp. 39~41.
  - 42) 천지영 (2000). 앞의 책, p. 80.
  - 43) fashion 전문 자료 사전 (1997), 한국 사전 연구사(KDR), p. 551.
  - 44) 남윤숙 · 김복희 (2001). 현대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 풍 패턴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 50.